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100만대에 육박

- 국토해양부의 ‘전국 시도별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현황’에 따르면 지난 7월말을 기준으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무보험 차량이 전국적으로 10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.
- 전국 16개 시도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총 1,673만 4,026대로 이 중 1,574만 9,764대 (94.12%)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, 미가입 차량은 98만 4,262대(5.88%)를 기록함.
 - 지역별 의무보험 미가입율은 전남이 7.56%로 가장 높았으며,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(6.04%), 서울(6.07%), 광주(5.74%), 대전(5.25%), 대구(5.14%), 부산(5.13%)의 순으로 나타남.
 - 반면, 울산은 책임보험 가입률이 96.09%로 1위를 차지했고 경남이 95.17%로 그 뒤를 이었음.
- 16개 시도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가운데 서울·경기 지역의 미가입 차량은 41만 6,613대로 전체 가운데 42.3%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경남 6.2%, 경북 6.1%, 인천 5.6%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반면,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 1.6%(1만 6,211대), 제주 1.7%(1만 6,632대), 광주(2만 7,047대) 등의 순임.
- 이처럼 책임보험 가입률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시민의식의 문제이기 보다는 지역내 총생산이나 서민소득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과 연계된 현상일 수도 있다는 분석임.
- 통계청이 발표한 ‘16개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’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울산이 4,29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, 인천은 전국 평균 1,956만원 보다 271만원 낮은 1,685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음.

(전국 시도별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현황,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-국토해양부, 9/23)